

# 1917년 러시아혁명과 붉은군대의 창설:

유토피아적 민병대에서 '강철 규율'의 정규군으로

李 在 勳\*

1. 서 론
2. 러시아혁명과 민병대적 붉은군대의 창설
3. 외국열강의 개입, 내전과 '강철 규율'을 지닌 정규군으로의 전환
4. 결 론

## 1. 서 론

1991년 소련은 70여 년 동안의 수명을 다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1917년 혁명 이후 혹은 기대감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전세계를 긴장시켰던 거대한 제국이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역시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 양 우리의 뇌리에서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제 소련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소련에 대한 무관심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련이 사라지고 그곳에 만들어진 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옛 소련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며, 그 군사적 지위를 이용해 한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는 핵무기를 비롯한 전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켰고, 소련 시절 보여 줬던 범세계적이고 이념적인 안보인식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 과거의 '제국주의적, 이념적 군대'에서 평범한 '일반국가 군대'로 변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지만 과거 소련이 쌓아 왔던 경험과 유산의 조속한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의 군사분야는 소련의 그것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다층적이고 복잡한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그 군사적 인식체계에 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옛 소련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군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소련군의 경험과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볼셰비키정권이 혁명 직후에 의도했던 유토피아적 민병대의 건설 의지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강철 규율'의 정규군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은 러시아제국이 가지고 있던 이념, 제도, 삶 등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짜르체제는 짧은 사이비 의회주의를 거쳐 볼셰비키체제로 전환, 고착되었으며, 국가 전체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 역시 그 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과거 소위 전체주의적, 제국주의적 체제하에서의 짜르를 위한 군대는 이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위한 무기'로서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군대는 단기간에 걸쳐 손쉽게 건설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소비에트 러시아가 처한 국내외적 현실이라는 무거운 부담은 사회주의적 군대라는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유토피아적 허상을 결코 오래 지속시키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군대는 1917년 10월혁명 직후부터 1920년대 초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겪으면서 볼셰비키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혁명과 혁명 사이 있었던 빨치산적 성격의 적위대 창설, 10월혁명 직후의 구 제국군대 해체와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새로운 지원군대의 창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있었던 외국열강의 개입 및 적백간의 내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즉흥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무복무에 기초한 '비사회주의적'인 대규모 상비군의 건설 등을 통해 소련군은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났던 것이다.

## 2. 러시아혁명과 민병대적 붉은군대의 창설

### (1) 러시아혁명과 군

1917년 초 러시아에는 혁명의 기운이 만연해 있었다. 독일 등을 상대로 한 전쟁은 이미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허약한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계속 패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경제는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어 있었다. 식량과 연료의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월 8일 마침내 전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위가 페트로그라드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에는 도시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시위대는 경찰에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지만 군대와는 충돌만은 피했다. 군대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시위대에 동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위대와 군 쌍방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짜르는 3월 11일이 되어서야 시위대에 대한 군대의 미온적인 대처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후 군과 경찰은 곳곳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게 되었지만 군대 가운데 짜르의 편에 서서 시위대의 진압에 적극적이었던 부

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군당국은 시위발생지역에 군대를 추가로 파병했다. 하지만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발포가 있자 추가로 파견된 부대 중 하나인 파블로프스키연대 4중대 병사들이 이에 격분해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병영으로 돌아와 제국에 대한 반란을 선언했다. 같은 날 이 중대는 다른 연대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으나, 최초의 군 내부 반란이 있는 직후 다른 부대들에서도 유사한 반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병사들이 시위대와 연대해 짜르체제의 전복에 앞장서게 되었다. 제정러시아가 붕괴된 3월 13일에는 총 12만6천7백 명의 병사가 반란에 가담했다.<sup>1)</sup> 이러한 병사들의 반란은 후에 2월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sup>2)</sup>

2월혁명 이후 일반병사들은 신분상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체제에서 그들은 이른바 억압적 독재체제의 수호자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고 시민권적 측면에서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특히 1905년 전함 포츨킨호의 반란 이후 군당국은 군대를 '청소'하고 혁명적 선전선동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병사들의 지위는 보다 격하되었다. 하지만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과 함께 병사들은 이제 혁명의 완수자이며 수호자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독재체제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그들은 높아진 지위를 기반으로 각종 위원회와 소비에트를 조직해 권력 기관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병사들은 이 조직을 통해 임시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보냈다. 그들은 군의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

1) История Великой Октябрь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М., 1962), сс.26~27.

2) Mark von Hagen, *Soldiers in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Red Army and the Soviet Socialist State, 1917-1930*(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13~14.

3) 혁명 전후 일반병사의 지위변동에 대해서는 J. Bushnell, *Mutiny amid Repression: Russian Soldiers in the Revolution of 1905-1906*(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pp. 1~23 참조.

편, 임금 인상, 가족들에 대한 경작지 대부 확대, 위생과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원했다. 그들은 또한 군 내부에서 정치문제를 논하고, 선거를 통해 군사적 사안을 결정하는 권리까지도 요구했다.<sup>4)</sup>

이에 따라 3월 15일 신정부는 병사들의 요구를 인정하는 '제1호 명령'을 선포했다. 흔히 '혁명군 자유헌장' 혹은 '병사들의 권리장전'<sup>5)</sup>으로 불리며, 훗날 트로츠키에 의해 '2월혁명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문서'<sup>6)</sup>로 묘사된 이 문서는 제국군대 내부 혁명세력의 급진적인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었다. 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선거로 구성된 각 부대의 병사위원회를 인정한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부대들에서는 조속히 선거를 실시한다.

각 부대의 보유무기는 병사위원회가 통제하며 ... 장교들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장교에 대한 경례, 장교 직함 등을 폐지한다.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압력은 금지된다.

장교는 병사에게 '너(Ты)'라고 할 수 없다.<sup>7)</sup>

혁명에 대한 병사들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하지만 국내외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당시 군사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러한 급진적 요구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었을까?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제1호 명령' 제정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위원 중 한명인 스코벨레프는 "구정권을 타도한 군부대들에서 지휘관들은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4) Marc Ferro, *The Russian Revolution of February 1917*, J. L. Richards and Nicole Stone 譯(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2), p. 133.

5) John Erickson,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2), p. 3.

6) L. D.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2 vols. (London, 1932), p. 289.

7) 『Известия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солдатских депутатов』, No.3, 1917.03.02.

제1호 명령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고, 골덴베르크는 "제1호 명령은 실수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 우리가 혁명을 수행한 바로 그날 구 제국군대를 해체하지 않으면, 구 제국군대가 혁명을 짓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군과 혁명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8)</sup>고 하고 있다. 요컨대 혁명의 수호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장교들을 배제하고 일반 병사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일반병사들의 급진적 요구까지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호 명령의 선포 이후에도 병사들의 급진성은 임시정부를 계속 괴롭혔다. 사회 전반의 급진화와 양극화를 배경으로 병사들의 요구는 더욱 격렬해져 갔으며, 급진적 병사들은 1917년 5월과 7월에 발생한 사건<sup>9)</sup>과 같은 심각한 위기들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각 병사위원회는 평화, 군대해산, 모든 장교에 대한 선출권과 모든 결정에 대한 투표권을 요구했으며,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할 것도 요구했다.<sup>10)</sup>

임시정부는 병사들의 급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독일과의 전쟁수행을 결정하는 한편, 병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시책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평화와 개혁을 약속한 볼셰비키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8)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0, No.4, с.130.

9) 당시 일반병사를 포함한 대중의 최대관심사는 전쟁의 중단이었다. 하지만 5월 1일 임시정부 외무장관 밀류코프는 연합국에 보낸 각서에서 제정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모든 조약을 지킬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종전을 원하던 일반병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와 제1차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 위기를 가까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7월에는 수상인 케렌스키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에 의거해 총참모부가 페트로그라드에서 전선으로 군대를 파견하자 급진적인 병사들이 임시정부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걸쳐 400~500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태를 거쳐 시위는 끝이 났다: К. Гусев, Хронология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М., 1994), сс.179~181 참조.

10) Keep, L. H. John, *Russian Revolution: A Study in Mass Mobilization* (New York: Norton, 1976), pp. 159~60.

1917년 11월 6일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볼셰비키정권을 수립하려는 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 임시정부는 폭동을 예견했지만 방어를 위해 집결시킬 수 있었던 부대는 소수의 사관생도 부대와 여성결사대대가 전부였다. 이에 비해 볼셰비키의 주력부대는 셋이었다. 무장노동자로 구성된 적위대는 북쪽과 남쪽에서 시의 중심부를 포위했고, 페트로그라드수비대의 혁명파 부대는 그 안에서 제2의 반원을 형성했다. 서쪽에서는 발틱함대의 군함들이 네바강 하구를 장악하고 있었다.<sup>11)</sup> 6일 밤 전투가 시작되었고 8일 새벽 혁명파가 임시정부의 거점인 겨울궁전을 함락시킴으로써 볼셰비키는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군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2개의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군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일반병사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보다 주목하는 어떤 새로운 정부를 기대했던 것이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결정적인 군사행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병사들은 새롭게 발족한 볼셰비키정권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볼셰비키정권 수립 직후의 구 러시아제국 정규군(이하 구군대로 표기) 해체와 신군대 창설과정에서 이러한 일반병사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표출되게 된다.

## (2) 구 제국군대의 해체와 새로운 붉은군대의 창설

### 1) 구 제국군대의 해체

볼셰비키에게는 정권 획득 직후 내외부 반소비에트 세력과의 갈등이 심

11) 11월 6일 페트로그라드에서 약 2만 명의 적위대, 약 6만 명의 발틱함대 병력, 약 15만 명의 페트로그라드수비대 병력이 볼셰비키혁명에 참여했다 : M. B. Захаров, ed., 50 лет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М., 1968), с.16.

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군사력의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볼셰비키 군사력의 근간은 민간무장력을 바탕으로 한 적위대와 일부 혁명파 부대로, 이들만을 가지고 백위러시아군(이하, 백위군)과 외국열강이 연합해 형성한 강력한 군사력을 감당해 내기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혁명 직후에도 구군대가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구군대는 반소비에트 세력화할 가능성이 컸고, 전투력 또한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볼셰비키정권 내부에는 구군대를 해체시키고 신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혁명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병사들의 요구, 그중에서도 특히 동원해제 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볼셰비키정권을 괴롭힌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동원해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있는 러시아의 전선을 적에게 노출시키고, 반소비에트 세력의 준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볼셰비키정권은 독일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새로운 군대가 창설될 때까지 우선은 구군대에 이른바 '민주화'를 보장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군내 볼셰비키세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볼셰비키정권이 구군대의 민주화를 위해 시도한 최초의 방안은 전선에서의 사형제도 폐지, 정치적 선전선동의 완전한 자유, 과거 소위 '정치적 범죄'로 구금되어 있던 병사와 장교들의 석방 등이었다.<sup>12)</sup> 볼셰비키정권은 이의 실천을 통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유산으로부터 스스로의 영역을 분리해 나갔다. 볼셰비키정권이 채택한 방안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된 각종 회의와 집회에서 볼셰비키정권에 대한 일반병사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했던 것이다. 일례로 11월 26일 시작된 국민의회 선거에서 북부전선과 서부전선 병력, 발틱함대 병력은 볼셰비키에게 대다수의 표를 몰아주어 볼셰비키는 가장 많은

12)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М., 1957), с.139.

의석을, 그리고 남부전선에서는 사회혁명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sup>13)</sup>

계속해서 볼셰비키정권은 12월 29일 '모든 군중사자들의 권리평등에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군 직급과 계급, 호칭과 특권, 각종 훈표장 등이 폐지되었고, 군중사자들은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sup>14)</sup> 또한 같은 날 '군 내부 선거원칙과 권력조직에 대한' 법령을 채택해 각 부대의 전권을 해당 병사위원회와 수병위원회 혹은 관련 소비에트에 이양하도록 규정했으며, 지휘관과 여타 직책을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선거원칙을 확립시켰다.<sup>15)</sup>

하지만 민주화만을 통해 일반병사들의 동원해제 욕구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반병사들은 전쟁을 즉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원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식적인 동원해제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고향으로 떠나고 있었다.<sup>16)</sup> 그 결과 전선의 많은 부대들이 와해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단지 강력한 볼셰비키조직이 구성되어 있던 일부 부대만이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 접하자 볼셰비키정권은 전선붕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동원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18)</sup>

1917년 11월 23일 구군대 동원해제에 대한 최초의 법령인 '군병력 감축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었고,<sup>19)</sup> 동원해제로 인한 병사들의 무질서한 조직과

13) 2년 후 레닌은 이 선거를 분석하고는 "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В. И. Лен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vol.40(М., 1965), сс.8~10.

14)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с.243.

15) ibid., сс.244~245.

16) М. В. Захаров, op. cit., с.23.

17)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던 부대의 총인원은 약 3~5만 명에 불과했다: ibid., с.22.

18) 동원해제에 관한 볼셰비키의 논쟁에 대해서는 Е. Н. Городецкий, "Демобилизация Армии в 1917-1918 гг.," История СССР 1(М., 1958), сс.3~31 참조.

19)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с.66.

해와 사기저하를 방지하고자 동원해제위원회가 조직되어 동원해제 업무를 감독하게 되었다.<sup>20)</sup> 하지만 정권의 조직적 동원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탈영은 계속 증가했다. 특히 1918년 1월 초에는 대다수 부대에서 대규모의 탈영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당시 각급 부대의 병사위원회는 중앙의 승인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부대를 해체시켰다. 각 부대의 볼셰비키 당원들은 이러한 무질서를 멈추게 할 힘도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해 1918년 1월 4일 군 참모장 본츠-브루에비츠는 인민위원소비에트에 "각 전선이 내린 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속 부대들은 전투에 전혀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의 위치에서뿐 아니라 후방 깊숙이 방어선을 설치한다 해도 적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sup>21)</sup>라고까지 보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1917년 11월 23일부터 1918년 3월 초까지 구군대에서 공식적으로는 15개 소집 연령층이 동원해제<sup>22)</sup>되었지만, 실상은 이 기간 동안 무질서한 탈영에 의한 군조직의 와해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민병대적 붉은군대의 창설

전술한 바와 같이 구군대의 해체는 볼셰비키정권에게 군사력의 급격한 약화라는 치명적인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볼셰비키정권은 시급히 자신의 붉은 군사력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붉은군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원적 형태로서의 적위대를 알아야 한다. 적위대는 2월혁명 성공 직후 설립되어 러시아내전 초기까지 존속한 러시아 볼셰비키군대의 기본적 조직형태로, 그 원형은 1905~1907년의 무장폭동에서 실체를 드러냈던 드루지나(Дружина: 무장노동자 전투

20)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с.17.

21) Октябрьская Революция и Армия: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М., 1973), с.352.

22)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с.18.

대)였다.<sup>23)</sup> 드루지나는 1905년 12월부터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 및 우익세력과 전투를 벌인 혁명 시기 러시아 최초의 무장혁명세력이었다.<sup>24)</sup>

2월혁명 성공 직후 볼셰비키는 사회주의혁명 단계로의 이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인 전체 노동자의 무장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sup>25)</sup> 이에 따라 1917년 4월 30일 페트로그라드에서 개최된 드루지나 대표자회의에서 적위대창설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27일 모스크바에서도 모스크바위원회에 의해 적위대의 창설이 결정되었다.<sup>26)</sup> 창설 초기 적위대는 드루지나와 병존했으나 드루지나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확장 결과 1917년 가을까지 각 도시와 산업 중심지의 공장위원회와 당위원회를 기반으로 적위대가 창설되었으며,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는 적위대 중앙참모부가 설립되었다.<sup>27)</sup>

적위대가 지니는 민병대적 성격, 각 부대의 자율성, 동지적 규율 등의 유토피아적 특성은 일반 정규군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즉 적위대는 지역 내 공장과 산업체를 단위로 부대를 조직하는 '지역생산원칙'에 입각해 조직되었으며, 적위대의 각 부대는 구역참모부, 위수사령부,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직장동맹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통솔되었다. 장교와 하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는 군사훈련을 받은 노동자, 혁명 참여 병사, 구군대 장교 중에서 병사위원회의 투표로 선출되었고, 모든 적위대 부대는 엄격한 '동지적 규율'<sup>28)</sup>에 입각해 운용되었다.<sup>29)</sup>

23)ハリエツト F.スコツト, ウィリアム F.スコツト 著, 乾一字 譯, 『蘇聯軍 思想, 機構, 實力』(東京:時事通信社, 1986), p.1 참조.

24) M. B. Захаров, op. cit., p. 15.

25)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vol.4(М., 1977), с.419.

26) ibid.

27) M. B. Захаров, op. cit., с.16.

28) 동지적 규율에서는 장교와 사병의 구분이 없고, 모든 구성원은 동지라는 호칭으로 불려진다. 또한 부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ibid.

29)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vol.4, op. cit., с.420.

사실 볼셰비키정권은 1917년 12월 초까지는 새로운 붉은군대를 적위대와 유사한 지역민병체제에 입각해 창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sup>30)</sup> 당시 볼셰비키를 포함한 러시아의 혁명정당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 사회민주당들과 마찬가지로 상비군에 대한 반감과 민병대의 선호라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장교의 배타적 특권, 국민정서와 유리된 병영, 가혹한 군기 등 전체체제의 기억은 상비군제도가 민주사회원칙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1)</sup>

하지만 12월 중순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볼셰비키정권은 지역민병체제 수립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독일정부는 평화협정을 파기하면서 볼셰비키정권에게 독일군이 곧 침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에서 볼셰비키정권을 타도하고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프랑스지역과 영국지역으로 분할점령한다는 비밀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개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sup>32)</sup>

기존의 군사력만을 가지고 이러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1918년 초 볼셰비키정권은 약 15만 명의 적위대와 일단의 혁명과 부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다수 구성원은 군대경험이 거의 없었고 군사교육을 받은 정규장교 역시 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적위대와 혁명과 부대들에 대한 지휘는 분산되어 있었고 군사훈련 또한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sup>33)</sup>

따라서 볼셰비키정권은 가능한 빨리 신군대를 창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파쇄, 교통과 통신수단의 붕괴, 식량, 무기, 의복의 부족, 경험의 부족 등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후에 레닌은 그 어려움

30) 볼셰비키정권은 1917년 12월 8일 지역민병체제를 군 조직의 근간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M. B. Захаров, op. cit., с.24.

31) Mark von Hagen, op. cit., pp. 20~21.

32)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с.18.

33) M. B. Захаров, op. cit., с.22.

을 “붉은군대 창설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 우리는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이다 … 우리는 경험을 통해 경험하며 그것을 진척시켰다 …”<sup>34)</sup>고 토로하고 있다.

어떻든 1917년 12월 23일 육군군사인민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산하 전러시아 전후방군사조직부로, 페트로그라드 적위대총참모부 등의 대표자들이 모인 비상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군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35)</sup> 12월 24일에는 북부전선 사령관 세르바코프와 전선 군사위원 포제른이 “중대위원회를 필두로 하는 모든 조직들에서 … 부르주아 반혁명세력과 투쟁 선봉에 서는 지원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붉은 혁명군대를 창설해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요청한다”<sup>36)</sup>는 내용의 전보를 예하부대 군사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혁명군 조직 전체에서 신군대의 건설방향과 형태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논의와 결정으로 다음이 있다. 우선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군사분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포드보이스키에 의해 신군대의 골격이 될 30만 명의 지원병으로 구성되는 군대의 창설계획이 발표되었다. 한편 회의에서는 신군대의 계급적 구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회의에서 케드로프는 “만약 제국군대로부터 병사들이 충원된다면 소비에트공화국은 농민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군대는 볼셰비키당에 충성을 바치는 공업 노동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급적 순결성’의 확보를 위해 농민의 신군대 참여를 반대했다. 하지만 회의 결과 농민계급도 신군대의 구성요소에 포함시켜, 사회주의군대는 ‘확고한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지닌 노동자, 농민 등 노동계급’을

34) В. И. Лен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vol.38(М., 1965), сс.137~138.

35) 사회주의군대의 창설논의에 대해서는 С. М. Кляцкин, На Защите Октября(М., 1965), сс. 80~85 참조.

36) Военно-революционные комитеты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25 октября 1917-март 1918 г.) (М., 1958), с.79.

근간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비볼셰비키 사회주의당들의 입장을 고려한 타협에 의한 것이었다. 즉 당시 좌익 사회혁명당은 사회주의 정규군의 창설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고, 우익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는 구군대의 완전한 해체가 아닌 부분적 해체와 지원지대 및 예비부대들을 이용한 전선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다.<sup>37)</sup>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계급의 배제는 자칫 정규군 창설이라는 큰 틀을 무너뜨리는 카드로 이용될 수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볼셰비키정권은 농민계급을 정규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18년 1월 루마니아전선 상황에 대한 비상보고<sup>38)</sup>와 관련해 군사인민위원회와 총참모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신군대 창설을 위한 기존의 방안들을 실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날 관련 지시가 총사령부에 하달되었다. 회의에서 결정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적위대와 혁명병사들로 이루어지는 지원자부대를 조직한다.

해군에서 수병을 최대한 차출해서 지원자부대를 강화한다.

군에 대한 식량, 의복, 사료, 교통수단, 연료 등의 공급을 위해 전국민의 노역의무 법령을 제정한다.

각급 당위원회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군에 투입해 이제 막 창설된 부대들을 지휘하게 한다.<sup>39)</sup>

1월 25일에는 제3차 전러시아 소비에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레닌의 ‘노동자와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신군대의 계급적 성격과

37) 회의에서의 계급논쟁에 대해서는 Ю. И. Кораблев, В. И. Ленин и защита завоеваний Великого Октября(М., 1979), сс.182~183 참조.

38) 1917년 12월 22일 루마니아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들이 독단적으로 철군을 단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이는 다른 전선 부대들의 철군을 야기했다: М. В. Захаров, op. cit., с.24.

39)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1968, No.1, с.17.

임무 등이 확정되었다. 이 선언은 근로대중의 무장,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붉은군대의 창설, 유산계급의 완전한 무장해제 등을 규정한 최초의 법령이었다.<sup>40)</sup> 이 선언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국가를 위해 무장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영광스러운 권리를 보유한다. 유산자는 무장할 수 없으며, 명백한 오점이 제거될 때까지 후방에서의 군사적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sup>41)</sup>고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의 주요규정들은 1월 28일 발효된 ‘붉은군대 창설에 대한’ 인민위원소비에트 포고령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포고문에는 군 건설의 기본원칙과 임무가 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군은 “노동자와 피착취 계급으로의 권력이전과 사회주의국가의 창설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설립되며, 무장력을 보유하고 지주와 부르주아 계급, 그리고 국외 반소비에트 세력에 대항하는 임무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포고문에서는 새로 창설되는 군대의 ‘엄격한 계급적 성격과 혁명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붉은군대는 각성한 조직적 노동대중을 근간으로 하여 창설되며 ... 10월혁명의 업적, 소비에트권력 및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생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sup>42)</sup> 한편 포고문에서는 군의 충원원칙과 지휘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붉은군대는 지원원칙에 입각해 충원된다.

붉은군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위원회, 당, 직장동맹 혹은 볼셰비키 정권의 정당을 지지하는 여타 사회조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부대 전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연대보증과 기명투표가 요구된다.

40)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c.352, 356.

41) В. И. Лен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vol.35(М., 1965), с.222.

42)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c.352, 355.

붉은군대에는 소비에트공화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차별은 두지 않는다.  
인민위원소비에트는 붉은군대의 최고지도기관이다.<sup>43)</sup>

이와 같은 결정의 결과 1918년 1월 31일 페트로그라드에서 볼셰비키정권 최초의 정규부대인 붉은군대 제1군단이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와 페트로그라드 수비대 소속 예비연대들의 볼셰비키 추종 병사들을 근간으로 창설되었다. 페트로그라드에 이어 모스크바를 비롯한 도시들과 여타 산업지역들에 정규군 부대들이 조직되었으며, 각 전선에도 새로운 군대가 조직되기 시작했다.<sup>44)</sup>

이상과 같은 지원원칙에 입각한 붉은군대의 창설은 볼셰비키정권의 상황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구군대 병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전쟁의 지속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10월혁명에 대한 일반병사들의 태도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각 전선에서의 탈영 증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셰비키정권은 지원을 통해 군에 참여하는 병사와 노동자들만이 정권수호의 진정한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19년 개최되었던 제8차 전당대회에서는 당시 볼셰비키정권이 지원제도를 제외한 다른 수단과 자원을 통해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구군대의 모든 부대와 지휘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지원병제도는 어느 정도 전투능력이 있는 부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sup>45)</sup>

43) КПСС о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кументы 1917-1981(М., 1981), сс.25~26;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сс.356~357.

44) ЦГВИА, ф.2003, д.39, лл.276~280. 1918년 2월 11일에는 ‘구 제국 해군의 해체와 붉은군대 해군 창설에 대한’ 포고령이 선포되었다. 이 포고령에 따라 해군 역시 붉은군대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조직되기 시작했다. 해군 창설 포고령은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1, op. cit., с.435 참조.

45)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vol.3(М., 1977), сс.211~212.



하지만 볼셰비키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붉은군대의 창설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한 볼셰비키정권의 변명은 다음과 같았다.

그때까지도 무장을 통해 혁명업적을 수호하고자 하는 과업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대다수의 인민은 군사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려 하지 않았다.<sup>46)</sup>

### 3. 외국열강의 개입, 내전과 ‘강철 규율’을 지닌 정규군으로의 전환

#### (1) 외국열강의 개입과 내전

1918년 봄 이후 소비에트러시아의 대내외적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독일군의 침공이 있었고, 곧이어 외국열강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었다. 2월 18일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양국군간에 벌어진 전투 결과 볼셰비키 군사력의 무력성은 곧 판명되었다. 무력성은 적은 수의 군병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붉은군대는 창설의 전통을 겪고 있었고, 기존의 적위대 부대들은 중앙지휘부가 존재하지 않은 채 각 지역소비에트와 군사혁명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또한 스스로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로 인식하고 있던 적위대 병사들은 붉은군대 장교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지휘관의 명령만을 수행했다. 실제 전투를 통해 표출된 붉은군대와 적위대의 갈등, 군 지휘관의 전통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적위대 부대의 태도 등은 중앙군사지휘부로 하여금 적위대와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군사

46) M. B. Захаров, op. cit., c.28.

전문가(Military Specialist)<sup>47)</sup>들은 적위대를 즉시 폐지하고 군사지휘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적위대 병사들을 붉은군대에 편입시키라고까지 요청했다.<sup>48)</sup>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은 붉은군대, 적위대 양방의 균열을 간파하여 타격한 후,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러시아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 위기상황에 빠지자 2월 21일 볼셰비키정권은 ‘사회주의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sup>49)</sup>라는 포고격문을 통해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들 가운데 일부를 신군대에 참여시켜 전선에 투입했지만<sup>50)</sup> 전선에서 계속 들어오는 패전보고는 볼셰비키정권으로 하여금 독일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강화조약 체결과 관련해 당시 볼셰비키정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로 ‘개별적 및 병합적 평화문제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직국의 입장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러시아가 강화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군사력의 결핍이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독일과 ... 강화조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은 ... 우리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가를 방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데 기인한다.” “혁명전쟁을 변호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미사여구에 침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실한 경제적 준비도 없고 군대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피폐한 농민국가를 구하기 위해 선진제국주의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sup>51)</sup> 볼셰비키정권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3월 3일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47) 이 용어는 ‘장교’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병사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구군대 장교들 중 붉은군대에 가담한 장교들을 백위군에 가담한 장교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볼셰비키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48) Mark von Hagen, op. cit., p. 25.

49) 『Правда』, No.32, 1918.2.22; 『Известия』, No.31, 1918.2.22.

50) 예를 들어 페트로그라드 한곳에서만 6만여 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蘇聯軍 思想, 機構, 實力』, op. cit., p. 3 참조.

51) 『Правда』, No.35, 1918.2.26.

을 체결했다.<sup>52)</sup>

하지만 강화조약 체결은 새로운 외국열강의 개입을 촉발시켰다. 영국, 프랑스, 미국과 일본군의 러시아내 주요 항구지역 점령이 바로 그것이었다. 제7차 전당대회가 개최되던 시기 런던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상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이 개최되어 러시아와 독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과 연합해 러시아 동부지역에 개입할 것을 결정했다.<sup>53)</sup> 결정에 따라 4월부터 외국열강의 부대가 러시아내 주요 항구지역을 점령했다. 4월 14일 일본군과 영국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했으며, 11월에는 영국군 해병대가 바쿠와 카프카즈의 바투미에,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약 5만 명의 프랑스군 부대가 오데사와 세바스토폴에 상륙했다.<sup>54)</sup>

한편 러시아는 외국열강의 개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반볼셰비키 세력의 광범위한 대두라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러시아내 반볼셰비키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두를 알리는 신호는 1918년 5월의 체코슬로바키아군 군단 폭동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군 포로 약 7만 명으로 구성된 이 군단은 당시 볼셰비키정권의 허락 하에 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 자국으로 귀환하도록 되

52) 독일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2월 23일의 당중앙위원회 표결은 찬성 7, 부하린을 포함하여 반대 4, 트로츠키를 포함하여 기권 4로 가결되었다. 어쨌든 조약 체결 결과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독일은 동부전선의 부대들을 서유럽으로 이동시켜, 1918년 3~4월에 프랑스군에 대한 대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в документах 1917-1993 гг., Кн.1(М., 1994), сс.115~117 참조.

53) 양국의 조약 체결은 외국열강에게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독일과 싸우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의 각 항구에 쌓여 있던 막대한 양의 대독연합측 무기와 군장비, 그리고 원료와 연료를 독일군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했다. 따라서 그들은 ... 러시아의 주요 항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던 것이며, 일본군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군대의 경우 러시아로 진입한 즉시 무기와 군장비, 원료와 연료 등의 독일 반출 방지에만 주력했다: И. В. Берге, Историческое недоразумение? Холодная вой на 1917-1990(М., 1996), сс.27~28.

54) 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vol.3(М., 1995), сс.247~250 참조.

어 있었다. 하지만 이 군단은 백위군과 협조해 볼셰비키정권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켰으며, 짧은 시간 내에 불가, 우랄과 시베리아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 또한 같은 시기 북카프카즈와 돈 지방에서는 데니킨, 알렉세예프, 크라스노프 장군 등의 백위군과 백위코사크군이 볼셰비키정권에 반발해 투쟁하는 등, 전체적으로 당시 러시아 영토 내에 최소한 18개 이상의 백위 러시아 정부가 수립되어 반볼셰비키 활동을 전개했다.<sup>55)</sup>

## (2) 민병대적 지원원칙에서 동원원칙의 정규군으로

외국열강의 개입과 백위러시아 세력의 대두로 인해 대내외적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시기 붉은군대의 총병력은 30만 명을 겨우 넘어선 상태였고, 그 가운데 무장병력은 단지 19만9천여 명이였다.<sup>56)</sup> 이 병력만으로 1918년 여름 현재 약 70만 명<sup>57)</sup>에 달하던 백위군 및 외국열강의 군사력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볼셰비키정권은 붉은군대 충원원칙으로서의 지원원칙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원칙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sup>58)</sup>이기는 했지만 “대규모 군대의 창설이나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군 충원

55) И. В. Берге, op. cit., с.28. 이와 관련하여 다른 러시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전 시기 러시아 영토에는 30개 이상의 소비에트공화국과 코문, 약 40개의 백위 민주공화국과 정부가 수립되었다”: 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с древних до наших дней, vol.2(М., 1995), с.232.

56) 『蘇聯軍 思想, 機構, 實力』, op. cit., p. 5.

57)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сс.45~46.

58) 민병체제에 대한 볼셰비키정권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문건으로 1919년 3월 제8차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군사문제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이 문건을 보면 지원원칙에 입각한 민병체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 프로그램에 제시되었던 소위 전인민적 민병대 성격을 포기할 것이지만, 결단코 민병대 계획 자체를 영원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vol.2(М., 1970), сс.60~71 참조.

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지원원칙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부대편성과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부대운영은 붉은군대의 전투력을 급속히 저하<sup>59)</sup>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볼셰비키정권은 이후 '지원군', '빨치산적 성격의 부대', '동지적 규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토피아적 군대로부터 동원원칙과 의무복무제에 입각한 '정규군'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적 군대로의 전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군사력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규군'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1918년 3월 제7차 전당대회에서 최초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전당대회에서는 의무복무제에 기초한 대규모 정규 붉은군대 건설의 불가피성이 대두되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sup>60)</sup>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통해 의무복무제의 도입을 비롯한 몇몇 변화가 결정되었는데,<sup>61)</sup> 이러한 결정들은 이후 소비에트러시아 국방을 위한 대중의 조직화, 군 건설, 군 편제 등을 규정하는 근원이 되었다.

동원원칙과 의무복무제에 기초한 대규모 정규군 건설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법령은 1918년 5월 29일 선포된 '붉은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포고령이었다. 볼셰비키정권은 이 포고령을 통해 동원원칙의 도입이 국가가 처한 내외부 상황, 특히 내외부 반소비에트 세력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sup>62)</sup> 포고령에 입각해 군사인민위원회에

59) *ibid.*, c.46.

60)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 결성된 최고군사소비에트는 3월 15일 인민위원회소비에트에 앞으로의 소련군 건설방안에 관한 보고문을 제출했는데, 보고문의 핵심내용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복무제로의 전환, 1백50만 병력을 보유하는 군사력 건설, 체계적 편제에 기초한 부대 건설 등이었다: ЦГАСА, ф.1, оп.1, д.118, л.5.

한편 3월 25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역시 의무복무제, 붉은군대의 편제, 지휘관과 군사위원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Ленин и Красная Армия(М., 1958), с.38.

61) 『Коммунар』, No.1, 1919.1.1.

62)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2, op. cit., с.334.

모스크바, 페트로그라드 등 프롤레타리아의 중심지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그리고 각 공업 중심지에서의 초기 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으며, 6월 1일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최초의 동원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월 11일부터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군단의 소요와 직접 관련이 있던 불가군관구, 우랄군관구, 서부시베리아군관구의 51개 군(郡) 지역에서 5개 연령층, 6월 17일부터는 모스크바와 그 근교에서 2개 연령층, 그리고 6월 29일부터는 페트로그라드와 그 근교에서 2개 연령층에 대한 소집령을 내렸다.<sup>63)</sup>

한편 대규모 정규군 건설이라는 볼셰비키당의 정책노선은 6월에 개최된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회의에서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회의에서 채택된 러시아연방 헌법에 "무기를 들고 혁명을 수호할 수 있는 명예로운 권리는 노동자에게만 부여된다. 비노동 계급에게는 여타의 군사적 의무가 부여된다"<sup>64)</sup>고 명기함으로써, '노동자 계급만이 아닌' 전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노동자와 농민의 의무복무원칙을 확립했던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의무복무제의 도입 이외에도 대규모 정규군 건설에 기반이 되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붉은군대 건설' 포고령이 채택되었는데, 이 포고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우연하게 부대를 만들고 원시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

모든 부대는 계급적 원칙하에 ... 단일편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붉은군대에 대한 중앙의 단일지휘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sup>65)</sup>

이는 한마디로 당시까지 존속하던 빨치산적, 민병대적 부대체계와, 부대에 대한 '민주적' 운영 방식을 부정하고, 정규군체제를 기초로 군대를 새롭게

63)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с.48.

64)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2, op. cit., с.554.

65) М. В. Захаров, op. cit., с.43.

게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규군에 합당한 규율의 강화에 특히 주목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붉은군대는 강철 같은 혁명규율을 바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이익수호를 위해 볼셰비키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국민은 볼셰비키정권이 임명한 지휘관의 요구 혹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sup>66)</sup>

하지만 의무복무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대규모 정규군을 조직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무기와 군장비, 그리고 지휘관이 부족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당시까지도 민병대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빨치산 형태의 다수 부대들이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지휘체계의 수립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으며, 동원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주민이 동원령에 반발했다. 특히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의 경우 전쟁에 대한 염증과 심각한 식량부족이 동원령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볼셰비키정권은 대도시에서 약 27만5천명을 동원하려 했으나 5만4천여 명만이 동원령에 응했을 뿐이었다.<sup>67)</sup> 볼셰비키정권은 이러한 장애로 인해 정규군의 건설과 전략적 전개계획을 짧은 기간 동안 네 차례나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68)</sup>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동원법령의 시행으로 군의 절대병력이 증가하게 되어, 일례로 1918년 10월 말에는 약 80만 명이 되었다.<sup>69)</sup>

### (3) ‘강철 규율’을 지닌 정규군으로의 전환

전술한 바와 같이 1918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유토피아적 군사정책으로부터의 전환 움직임은 1919년 제8차 전

66)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2, op. cit., с.543.

67) Mark von Hagen, op. cit., pp. 30~31.

68) Совет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op. cit., p. 49.

69) ЦГАСА, ф.6, оп.4, д.953, л.63, 97, 98, 100, 101, 140, 141, 183, 257~271에서 산정.

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19년 3월 18~23일 개최된 제8차 전당대회에서는 군사문제에 상당부분을 할애해 새롭고 ‘현실적인’ 군사방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 결정되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논의된 사안 가운데 핵심문제는 ‘강철 규율’에 입각한 정규군의 건설이었다.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졌다. 소콜니코프는 트로츠키를 대신해 발표한 군사인민위원회 테제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지원군과 빨치산부대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고 ‘강철 규율’을 지닌 정규 붉은군대로의 전환을 완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빨치산부대의 존속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해 좌익사회혁명당 혹은 뿌띠부르주아 인텔리겐치의 망발이라고 비난했다.<sup>70)</sup> 이에 대해 정규군 건설을 반대했던 스미르노프는 소콜니코프의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는 빨치산적 형태의 군사력만으로도 내외부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혁명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붉은군대를 구군대와 같은 정규군으로 환원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군사전문가의 붉은군대 영입과 붉은군대에 대한 엄격한 군기 및 법령의 도입은 붉은군대로부터 농민을 이반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농노제와 짜르 군대의 규율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sup>71)</sup>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개최된 비공개회의에서 ‘강철 규율’에 기초한 정규군의 건설을 결정함에 따라 트로츠키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sup>72)</sup>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군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의 범위였다. 결론적으로 전당대회에서는 중농을 인정하고 과거에 표명되었던 ‘중농의 중립화’ 노선을 ‘부농에 대항하는 빈농과 중농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후 중농에 대한 징병이 가능하게 되

70) 소콜니코프의 테제에 대해서는 Восьмой съезд РКП(б), март 1919 года: Протоколы(М., 1959), сс.144~153 참조.

71) 스미르노프의 안티테제에 대해서는 ibid., сс.412~423 참조.

72) В. И. Лени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vol.38(М., 1965), сс.211~212.

었다.<sup>73)</sup>

군사문제와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시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철 규율’에 입각한 정규군의 건설.

군 충원에 있어서의 계급적 성격 완화.

전체 당과 정부의 통합적 군사력 건설 지휘체계 확립.<sup>74)</sup>

한편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 볼셰비키정권의 ‘강철 규율’에 입각한 정규군의 강화 움직임은 이후에 계속되는 대내외 적대세력과의 무력투쟁 상황과 연계해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장은 1919년 3월 말 콜차크 장군의 백위군이 시베리아에서 볼셰비키정권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을 때 시작되었다. 콜차크군은 같은 해 4월 볼가에 당도해 유럽지역 러시아로의 진출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볼셰비키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동원을 결정하고,<sup>75)</sup> 4월 10일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와 9개 중앙 현(縣)에서 1886~1890년생의 모든 남성에게 대한 동원령을 선포했다. 또한 4월 26일에는 내무인민위원회가 각 읍(邑) 행정위원회에 10~12개 소집 연령층에 해당하는 중농과 빈농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sup>76)</sup>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후 당 중앙위원회는 동원이 실패라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볼셰비키정권은 14만 명의 지원자를 예상했지만 24,661명만이 동원에 응했기 때문이었다.<sup>77)</sup> 어쨌든 볼셰비키정권은 1919년 여름 콜차크군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공세를 취해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콜차크군과의 전투를 통해 강력한 군대의 건설이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한 볼셰비키정권은 이후 군사

73) *ibid.*, cc.234~235.

74)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vol.2, op. cit., cc. 60~71 참조.

75) Директив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vol. 12(М., 1976), с.5.

76) *ibid.*, cc.63~65.

77) Mark von Hagen, op. cit., p. 68.

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유데니츠 장군과 데니킨 장군이 이끄는 백위군과의 전투는 볼셰비키 군사력의 강화가 연출되는 또 하나의 무대였다. 우선 동부전선의 콜차크군과 싸우던 볼셰비키정권은 5월 중순 유데니츠군이 페트로그라드 부근까지 진출하자 페트로그라드전선에 주목하고, 5월 28일 ‘페트로그라드 방위’라는 격문을 통해 페트로그라드의 방위를 위한 9개 현(縣)의 동원령을 선포했다.<sup>78)</sup> 또한 같은 날 볼셰비키정권은 ‘모든 당조직들에게’와 ‘현 대표자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훈령’을 통해 동원의 활성화와 군사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sup>79)</sup>

5월 19일에는 데니킨 장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동부전선의 콜차크군, 페트로그라드전선의 유데니츠군 등과의 전투에 여념이 없던 볼셰비키정권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데니킨군과의 싸움은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데니츠군을 처음으로 격파한 후인 7월 3일 당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어 일반 국방문제와 더불어 데니킨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남부전선의 상황이 주요관심사로 논의되었다. 총회에서는 수일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7월 9일 국가를 “말만이 아닌 실제적인 군사캠프로 만들고, 모든 기관과 행정부서의 활동을 군사적 양식으로 수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데니킨군과의 전투에 동원할 것을 호소하는 ‘데니킨과의 투쟁에 모두 나서자’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했다.<sup>80)</sup> 또한 당원들의 동원을 독려하고 남부전선에 효과적인 지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고위 당활동가 집단과 타전선 소속 일부 군지휘관을 남부전선에 파견했다. 하지만 데니킨군과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당원들에 대한 총동원령 대신 개인적 동원과 부분적인 지역동원만을 제한적으로 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총동원령을 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78) 『Известия ЦК РКП(б)』, No.1, 1919.5.28.

79) 『Известия ЦК РКП(б)』, No.1, 1919.5.28.

80) 『Известия ЦК РКП(б)』, No.4, 1919.7.9.

지역 당조직들이 처해 있던 곤란한 상황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19년 여름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 시위원회는 동원령에 반발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동원은 문자 그대로 우리 도시가 지니고 있는 삶의 힘을 고갈시킬 것이다 … 우리 도시를 마르지 않는 프롤레타리아의 원천이라고 보는 중앙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sup>81)</sup>

이와 같이 동원활동이 부진하자 볼셰비키정권은 모든 당조직들에게 동원 인력에 대한 대규모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의 지원에 힘쓰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독려의 결과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재검사와 과거에 동원해제된 자들을 군무에 편입시키는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어 남부전선으로 파견되었다.<sup>82)</sup>

이상과 같은 군병력 증가시책을 통해 1919년 총 300만 명으로 증강된 볼셰비키 군대는 러시아 각지의 백위군을 붕괴시키고 1920년 초반 혁명 후 최초의 평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평화기의 도래와 때를 같이해 개최된 제9차 전당대회에서는 기존의 군사력 강화방향을 민간경제 강화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일부 부대를 민간경제 분야에 투입되는 노동군으로 전환하는 안이 승인되었다.<sup>83)</sup>

하지만 1920년 봄에 소비에트러시아가 향유했던 짧은 평화의 시기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폴란드와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끝나고 말았다. 4월 25일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를 침공해 5월 7일에는 키에프를 점령했다. 소비에트군은 하계공세를 통해 바르샤바 성까지 도달했으나, 8월 중순 과도하게 연장된 병참선의 붕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동쪽으로 퇴각했다.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10월 12일 리가평화조약을 통해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던 대다수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폴란드와의 전쟁이

81) Mark von Hagen, op. cit., p.80.

82) 동원활동을 통해 남부전선은 5만8천명을 더 충원 받을 수 있었다: ЦГАСА, ф.33988, оп.1, д.6, л.16.

83) “О переходе к миллионной системе.” Девяты съезд РКП(б), март-апрель 1920 года: Протоколы(М., 1960), с.407.

한창일 때 붉은군대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브랑겔 남작 휘하의 백위군과도 전투를 벌여야 했다. 붉은군대는 폴란드와의 평화조약 체결 이후 공세를 전개해 11월 말 브랑겔군을 크림 반도로 그리고 마침내는 터키로 퇴각시킴에 따라, 러시아내 백위군 세력의 무장저항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 시기 폴란드 및 브랑겔군과의 전쟁에 직면한 볼셰비키정권은 평화기 군사력 개편계획을 중단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동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sup>84)</sup> 이 결정에 따라 볼셰비키정권은 노동군의 대다수를 재차 전투부대로 환원시켜 서부전선과 남서부전선으로 파견했으며, 서부전선과 남서부전선 부대들을 강화하기 위해 1879~1885년생 병사들에 대한 동원해제 작업을 중지하는 동시에 1901년생에 대한 동원을 실시했다.<sup>85)</sup> 1920년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1차 동원 결과 서부전선과 남서부전선에 약 3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두 번째 동원령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었다.<sup>86)</sup> 그리고 그 결과 붉은군대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증강되어, 3년여에 걸친 내전을 통해 220만 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그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식량, 의복, 의료품 등의 결핍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말 내전이 종료되었을 때 붉은군대의 병력은 400만 명의 농민을 포함해 5,317,159명에 이르게 되었다.<sup>87)</sup> 이제 붉은군대는 더 이상 유토피아적 허상에 입각한 허약한 군사력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84) КПСС в резолюциях и решениях съезд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пленумов ЦК, vol.2, op. cit., сс. 182~185 참조.

85) ЦГАСА, ф.33988, оп.1, д.6, л.14.

86) Директивы командования фронтов Красной Армии, 1917-1922 гг., vol.4(М., 1978), сс. 278~279.

87) ibid., с.227.

## 4. 결 론

이상에서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붉은군대의 창설과 강화과정에서 보여졌던 군대 성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초에 볼셰비키정권은 새로운 붉은군대를 혁명 시기 볼셰비키의 기본적 조직형태였던 적위대와 유사한 지역민병체제에 입각해 창설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열강의 침공 위협과 뒤이은 실질적인 침공, 그리고 외국열강의 지원을 받는 백위군과의 투쟁 등 소비에트러시아를 위협하는 국내외적 요인들은 그러한 볼셰비키정권의 유토피아적 염원을 용납하지 않았다. 볼셰비키정권은 획득한 권력의 보위와 강화를 위해 과거 자신들이 끔찍하게 증오했던 '비사회주의적'인 정규군체제를 붉은군대의 기본형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 직후 국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붉은군대의 성격 변동은 어찌 보면 소비에트체제가 가지고 있던 유토피아적 세계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비현실적 신념으로 이루어진 국가체제가 결국은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체제의 몰락이 곧 그 국가가 가지고 있던 전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소련이 쌓아 왔던 군사적 경험과 제국주의적 유산의 조속한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의 군사 분야는 소련의 경험과 유산을 가장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인식체계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옛 소련군의 모습을 상당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러시아의 군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소련의 군사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반추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현재 러시아의 군사 분야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쓴 것이다. 이 글이 현재 러시아의 군사 분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부족하나마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08. 1. 11, 심사완료일 : 2008. 3. 24)

주제어 : 러시아혁명, 붉은군대(소련군), 구 제국군대, 민병대, 적위대, 강철규율, 상비군, 정규군, 볼셰비키, 러시아내전

<ABSTRACT>

The Russian Revolution in 1917 and Establishment of Red Army :  
from the Utopian Militia to the Regular Army with 'Iron Rule'

Lee, Jae-hoon

The Russian Revolution in 1917 had changed all spheres of the Russian empire. Tsar's absolutism had conversed *Bolshevik's* dictatorship through pseudo parliamentary system. All Russian nations had to be fit for that rapid change. Army was also allowed no exceptions. The past days Russian Army existed only for Tsar. But after the Revolution the army had to be changed for the proletariat. However new army was constructed easily in the short-term course. The conditions which pressured Soviet Russia also had not allowed army's easy change.

The New Soviet Army was born in comparatively long period with many trials and errors. And we could see the army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Bolshevik's* primary inten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Bolshevik's* Army's construction process from the Russian Revolution 1917 till 1920. And also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immediate cause which we can see from the *Bolshevik's* Army's form during the above mentioned period.

Key Words : Russian Revolution, Red Army(Soviet Army), Imperial Army, Militia, Red Guard, the Iron Law, Standing Army, Regular Army, *Bolshevik*, Russian Civil War